

2023.09.18(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9-18 오전 4:14

수정한 날짜: 2023-09-18 오전 7:57

2023.09.18(월) 증권사리포트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상승 전환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3Q23 영업이익 1.8조원(+167%QoQ) 예상

삼성전자의 3Q23 실적이 매출액 67.3조원(+12%QoQ)과 영업이익 1.8조원(+167%QoQ)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부진한 단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 DS(반도체): 영업이익자 4.0조원 예상. DRAM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출하량(b/g +18%)과 가격(ASP/Gb +8%QoQ) 기록할 전망이다. DRAM 내 HBM의 매출 비중도 12%로 증가. NAND는 부진한 출하량(b/g +5%)과 예상보다 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적자 지속될 전망이다. 파운드리·LSI는 8인치 업황 악화에 따른 영업적자 지속 예상. 12인치는 회복세 진입

* SDC(디스플레이): 영업이익 1.6조원(+92%QoQ) 예상.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라 OLED 판매량 증가(+17%QoQ). Rigid OLED 부진은 지속

* MX/NW: 영업이익 3.2조원(+5%QoQ) 예상. 플레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 반영. 네트워크 사업 부분의 실적은 추가 하락 예상

* VD/가전: 영업이익 0.6조원(-13%QoQ) 예상. TV 판매량 +5%QoQ 전망. 생활가전 부문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감소 예상

4Q23 영업이익 3.4조원 전망, 메모리 가격 상승 예상

4Q23는 매출액 67.0조원(-1%QoQ)과 영업이익 3.4조원(+92%QoQ)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DRAM 및 파운드리·LSI의 영업흑자 전환, NAND의 영업적자 폭 축소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향 모바일 DRAM의 판매 가격이 +7~8%QoQ, PC DRAM 가격이 +2~3%QoQ 상승하며, DRAM 부문의 영업흑자 전환을 이끌 것으로 판단 중이다. 또한 큰 폭의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NAND 역시 4Q23+2~3%QoQ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며, 업황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주가 9만원, 업종 top pick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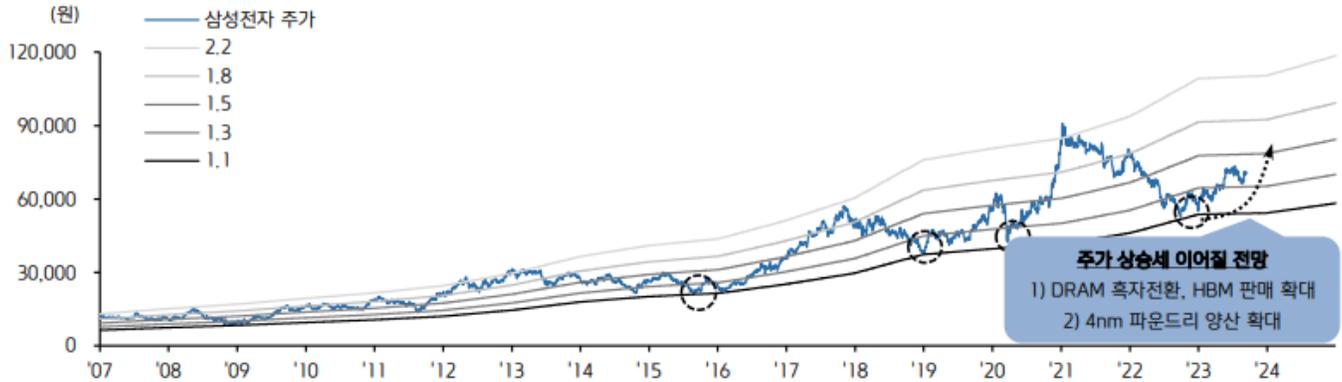
당사 예상과 같이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의 HBM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Q23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규모 감산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오히려 현 시점부터는 'HBM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 등 사업 펀더멘탈의 개선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 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목표주가 9만원과 반도체 업종 top pick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79,605	302,231	258,010	274,310
영업이익	51,634	43,377	6,521	35,448
EBITDA	85,881	82,484	47,387	77,786
세전이익	53,352	46,440	11,105	40,503
순이익	39,907	55,654	9,048	31,18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39,244	54,730	8,366	30,669
EPS(원)	5,777	8,057	1,232	4,515
증감률(%YoY)	50.4	39.5	-84.7	266.6
PER(배)	13.6	6.9	57.6	15.7
PBR(배)	1.8	1.1	1.4	1.3
EV/EBITDA(배)	5.2	3.5	6.5	3.9
영업이익률(%)	18.5	14.4	2.5	12.9
ROE(%)	13.9	17.1	2.4	8.5
순부채비율(%)	-29.0	-25.4	-30.8	-30.0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12개월 Trailing P/B Chart: 메모리 가격 반등과 동반된 주가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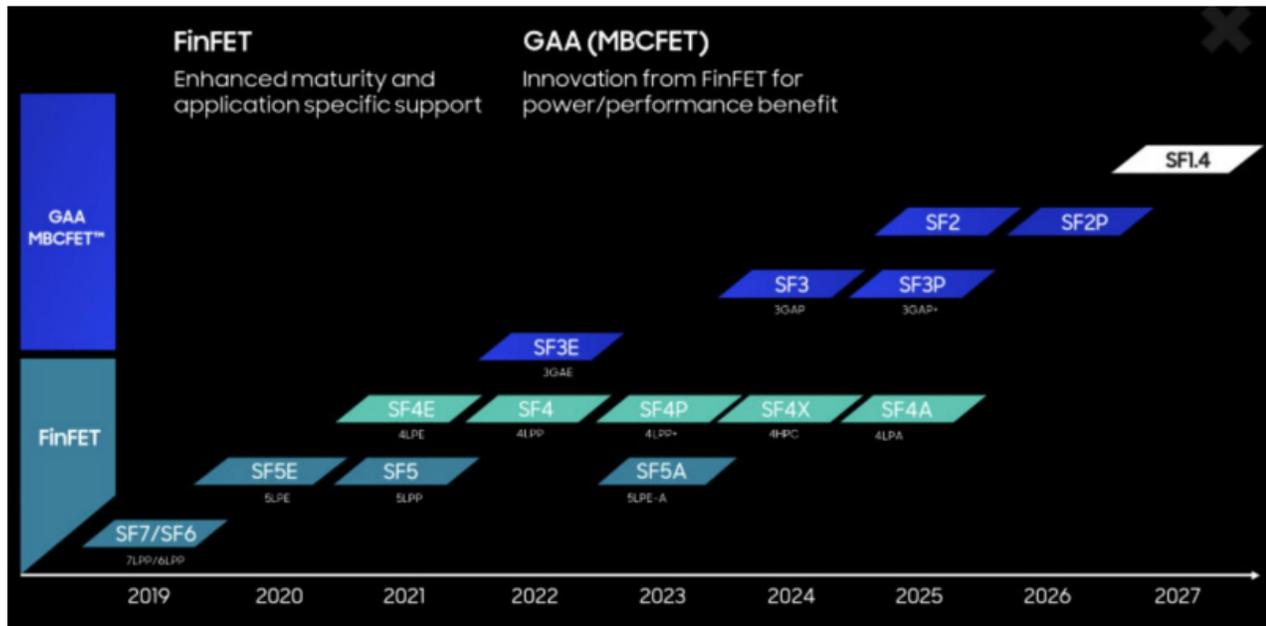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P/B vs. ROE Chart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성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티씨케이

삼성전자 8세대 V-NAND 양산 확대 수혜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 예상

티씨케이의 실적 감소를 일으키고 있는 메모리 고객들의 감산 영향이 분기 후반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4의 과잉 재고'와 'Enterprise SSD의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외 전공정 공장의 가동률을 크게 낮춰왔으며, 티씨케이의 Solid SiC 부문 실적도 지난 2Q22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4Q23를 시작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티씨케이의 실적도 1년여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8세대 V-NAND, Lam Research 점유율 상승

티씨케이의 3Q23 실적은 매출액 512억원(+8%QoQ)과 영업이익 155억원(+20%QoQ)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하기는 하지만, Lam Research 등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며, 전 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8세대(236단) V-NAND 양산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올 연말 본격 양산 확대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8세대 V-NAND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방식이 적용되고, 기존 세대보다 높은 공정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 내 Lam

Research의 에처(etcher) 장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공정 난이도로 인해 에처 장비 내 SiC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am Research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티씨케이의 실적은 2024년 매출액 2,868억원(+33%YoY)과 영업이익 1,074억원(+59%YoY)을 기록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가 rock bottom 수준.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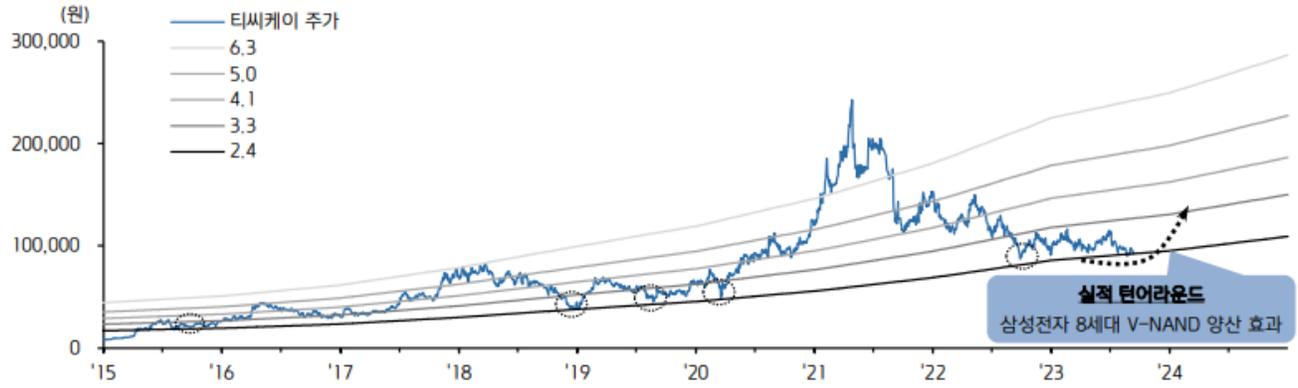
메모리 감산에 따른 티씨케이의 단기 수익성 하락 및 주가 조정이 예상보다 더욱 크고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단기 수익성 하락 영향의 대부분이 물량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및 8세대 V-NAND 양산 확대'와 함께 재차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가는 메모리 감산 영향 등이 반영되며 12개월 trailing P/B 2.4배의 rock bottom 수준까지 급락해, 중장기적인 valuation 매력에 다시금 높아진 상황이다. 티씨케이에 대한 중장기적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며,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고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70.8	319.6	216.3	286.8
영업이익	103.4	127.0	67.6	107.4
EBITDA	116.0	141.1	81.6	122.4
세전이익	106.3	127.9	76.1	114.7
순이익	81.9	94.1	60.3	88.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81.9	94.1	60.3	88.7
EPS(원)	7,014	8,056	5,167	7,594
증감률(%YoY)	35.3	14.9	-35.9	47.0
PER(배)	21.2	11.7	18.0	12.3
PBR(배)	5.11	2.65	2.36	2.05
EV/EBITDA(배)	13.2	6.1	10.8	6.8
영업이익률(%)	38.2	39.7	31.3	37.4
ROE(%)	26.9	24.9	13.7	17.9
순부채비율(%)	-59.8	-59.8	-64.6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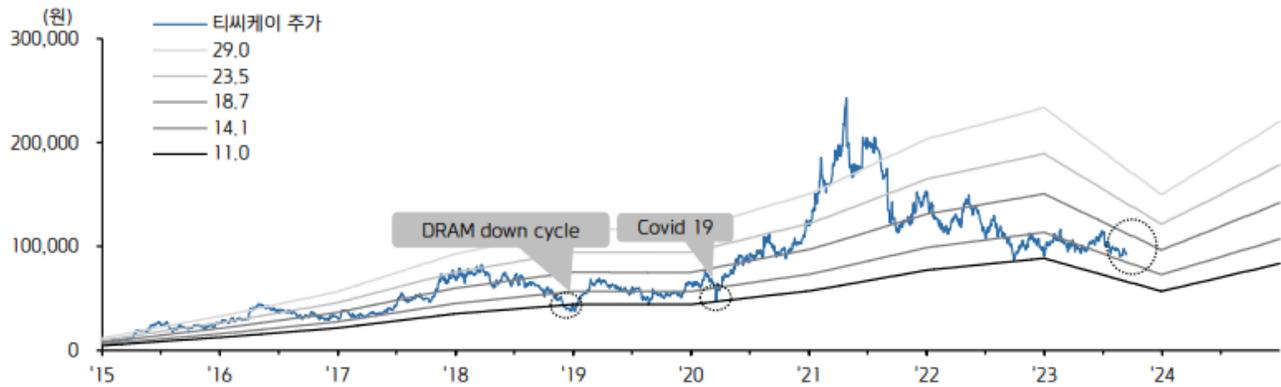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티씨케이 12개월 Trailing P/B Ratio: rock bottom 수준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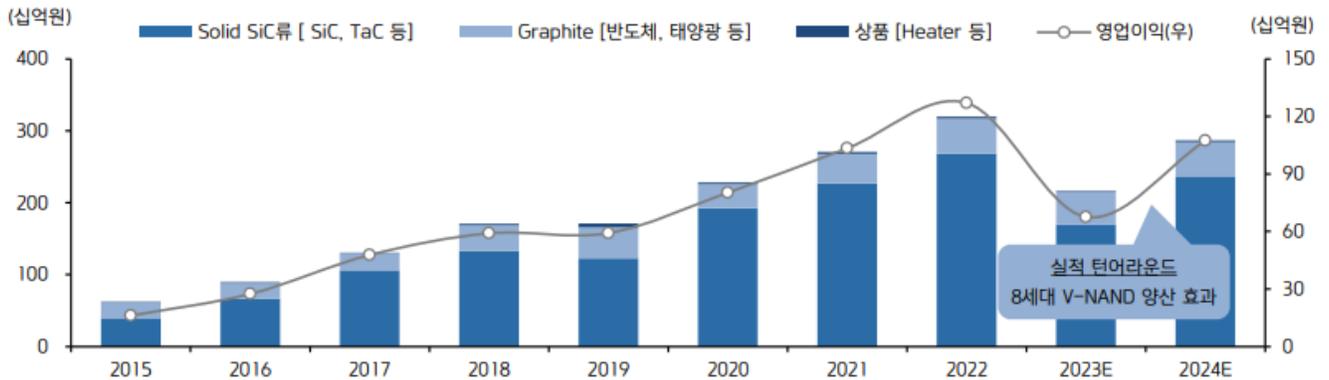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티씨케이 12개월 Trailing P/E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티씨케이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오토에버

Good Company vs Good Stock

[\[출처\] 유안타증권 장윤석 애널리스트](#)

현대차그룹 대표 성장주

2023년, 현대오토에버 주가는 YTD +101% 상승. 특히 6/28 CEO 인베스터 데이(CID) 이후부터 주가는 +46%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 [그림-1]

① 현대차그룹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전 사업 부문이 기대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 지배순이익이 5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3년, '24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상향 기조 [그림-2~5]. ② CID는 상향된 중기 매출 목표 발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신감과 외형성장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주가 Catalyst로 작용했다고 판단

Good Company

제조 스마트화, 차량 전장화 트렌드 속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Good Company. 현대차그룹의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에 따라 동사 Enterprise IT 수요('22~'25년 매출 성장률 CAGR +13% 추정)가 보장되어 있으며 완성차 SDV 전환에 따라 신성장사업인 차량SW는 고성장('22~'25년 매출 성장률 CAGR +25% 추정)을 지속할 전망 [그림-6]. 고마진 구독형 매출을 확대해 전사 이익 믹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도 긍정적

But a Good Stock?

9/14 기준, 12개월 선행 PER 31배에 근접한 동사 주가는 이러한 성장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판단. 동사는 '21년 현대오토에버-엠엔소프트-오토론 합병 이후 평균적으로 Forward PER 30배에 거래 [그림-7].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시장 기대치 이상의 이익 성장 발현이 필수적이지만 차량SW 검증,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를 하는 시점은 '25년 현대차-기아 신공장 가동 이후가 될 전망 [표-2]. 따라서 목표주가를 '24년 EPS 추정치(기존 '23년 EPS)에 Target PER 30배를 적용해 20만원으로 상향하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 나타난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해 투자의견을 HOLD로 조정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3Q23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8,530	16.8	13.1	8,238	3.5
영업이익	528	58.8	0.2	495	6.7
세전계속사업이익	528	22.4	4.0	545	-3.1
지배순이익	394	26.1	4.0	401	-1.9
영업이익률 (%)	6.2	+1.6 %pt	-0.8 %pt	6.0	+0.2 %pt
지배순이익률 (%)	4.6	+0.3 %pt	-0.4 %pt	4.9	-0.3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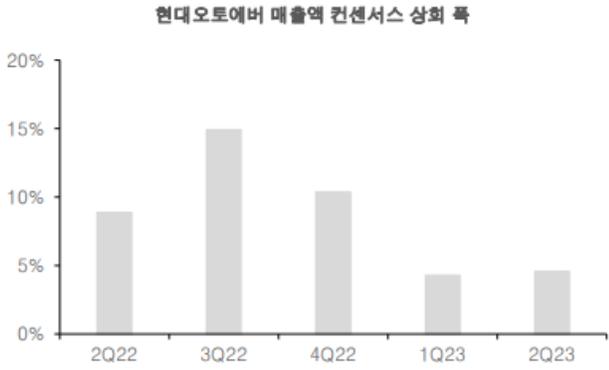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20,704	27,545	32,483	37,296
영업이익	961	1,424	2,010	2,444
지배순이익	698	1,139	1,567	1,821
PER	44.7	28.8	33.8	29.1
PBR	2.4	2.2	3.3	3.0
EV/EBITDA	13.7	10.5	14.6	13.7
ROE	7.3	8.0	10.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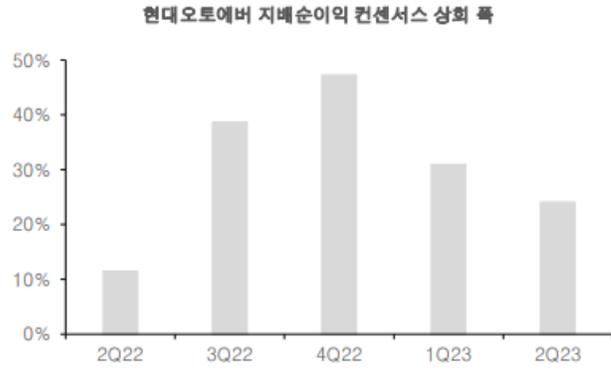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2] 현대오토에버 매출액 컨센서스 상회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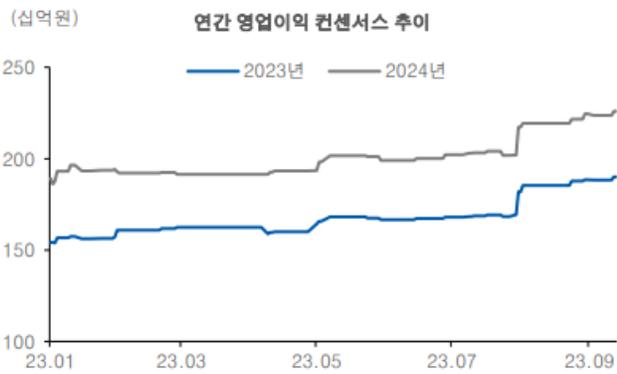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현대오토에버 지배순이익 컨센서스 상회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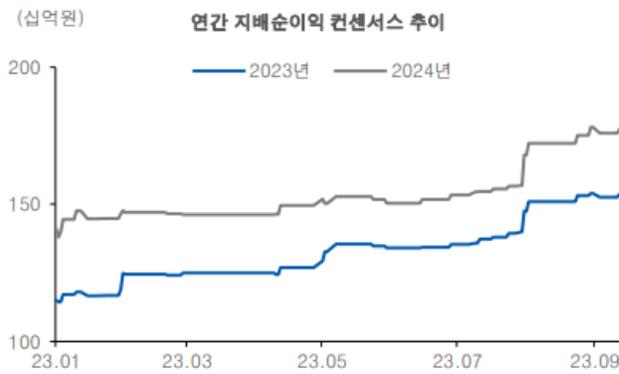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현대오토에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현대오토에버 연간 지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포스코인터내셔널

실적 순항 중

[\[출처\] NH투자증권 김동양 애널리스트](#)

현재와 미래가 어우러진 친환경 성장성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Senex Energy 인수(50.1%), 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생산-저장-발전을 아우르는 LNG사업 통합 시너지 및 친환경사업 확대 도모

에너지사업 투자 확대(2025년까지 3.8조원)로 LNG(신규광구, 터미널/연계사업) 및 친환경(청정수소, 해상풍력) 강화 계획. Senex Energy 증산, 미얀마가스전 개발 3단계, 구동모터코아 생산거점 확대(중국, 멕시코, 유럽, 2030년 700만대). 철강 온라인 플랫폼 확대, 흑연 등 2차전지 소재 및 원료 공급 고도화 계획

비교대상기업 비중 변경(일본종합상사에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20%→25% 반영) 및 주가변동에 따른 목표 PER 배수 변경 반영(15배→17배), 목표주가를 77,000원에서 94,000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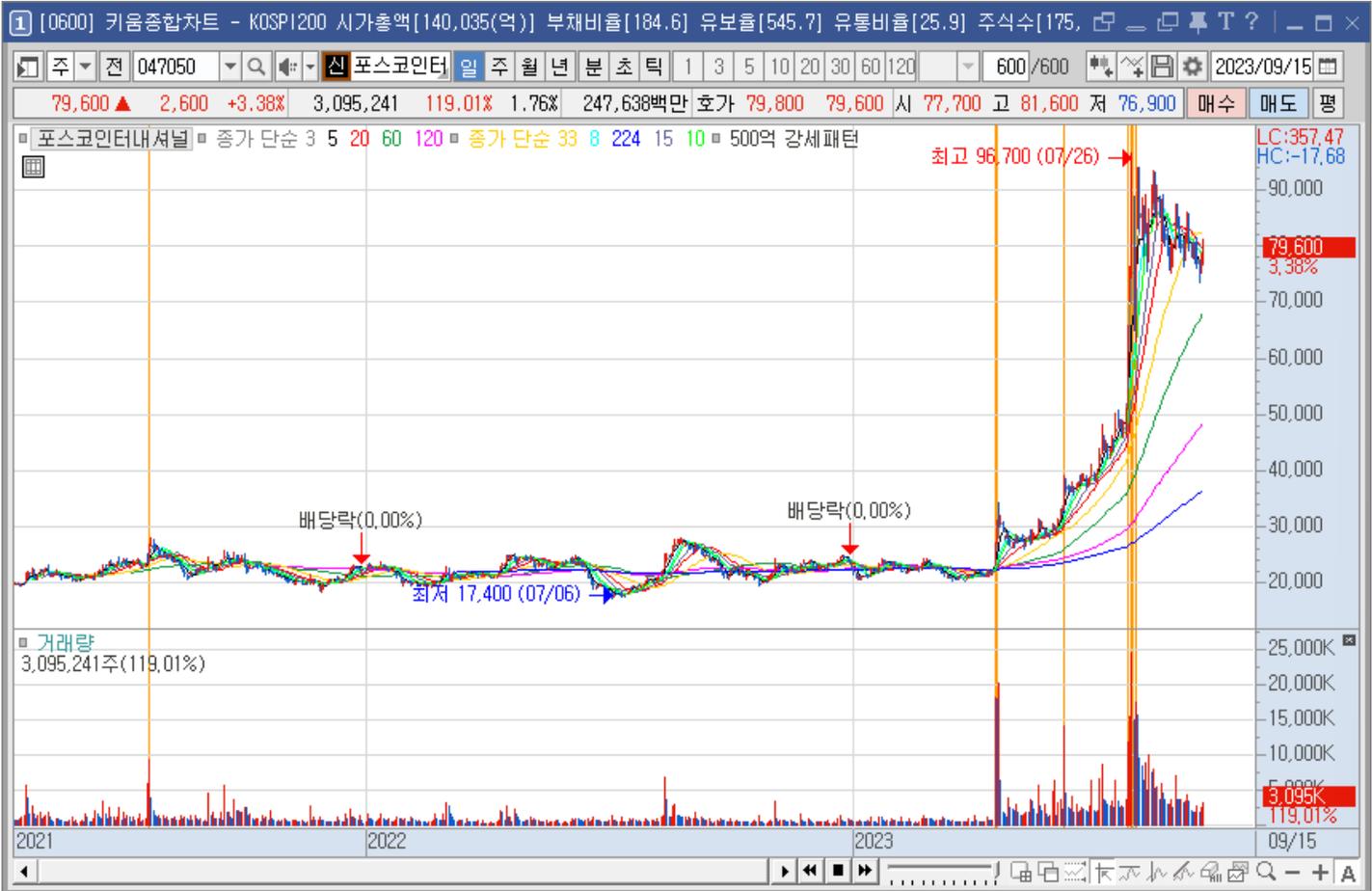
3분기 실적 Preview : 2분기와 유사한 흐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9조4,553억원(+5% y-y), 영업이익 3,453억원(+75% y-y)으로 시장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망

에너지사업은 미얀마가스전(995억원, -8% y-y)에서 유가에 후행하는 판가 하락에도 전분기에 이은 높은 투자비 회수로 강세 전망, 발전도 극서기 발전수요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기대. 글로벌사업은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向 친환경 고부가 철강 판매 호조 지속, 구동모터코아 판매량 증가 추세 지속 전망. 최근 현대차向 구동모터코아 353만대 등 1년간 1,038만대 수주로 성장 기반 확보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37,990	36,461	42,586	43,659
증감률	11.9	-4.0	16.8	2.5
영업이익	903	1,252	1,326	1,443
증감률	54.2	38.7	5.9	8.8
영업이익률	2.4	3.4	3.1	3.3
(지배지분)순이익	590	794	940	1,075
EPS	4,780	4,516	5,341	6,108
증감률	63.5	-5.5	18.3	14.4
PER	4.7	16.3	13.8	12.1
PBR	0.7	2.8	2.4	2.1
EV/EBITDA	4.9	8.9	8.8	8.4
ROE	15.8	18.6	19.0	18.5
부채비율	184.6	165.1	152.9	134.3
순차입금	3,129	3,190	2,748	2,170

단위: 십억원, %, 원, 배



진에어

경쟁 심화 우려 확대, 통합이 필요하다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이익 피크아웃 우려로 인한 적용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기존 21,000원에서 17,000원으로 19% 하향. 예상보다 높은 국제선 여객 운임을 기반으로 2023년 연간 실적을 27% 상향 조정하나, 2023년 실적은 지속가능한 이익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실적 추정치 상향에도 Target 밸류에이션 하락이 목표주가 하향의 원인. 목표주가 산출은 2023~2024년 연간 평균 주당순이익(EPS)에 Target PER 9.0배 적용

항공사들의 운용 기재 확대로 단거리 노선 경쟁 심화 불가피

중장기 한국의 항공산업은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 코로나구간 경쟁구도 재편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저비용항공사(LCC) 외에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의 항공사가 재차 기재를 확대 중. LCC 운영 기재는 2019년 157대를 고점으로 2022년말 130대까지 감소하였으나, 23년말에는 148대까지 회복 전망. 3분기 성수기에도 2023년 1분기 운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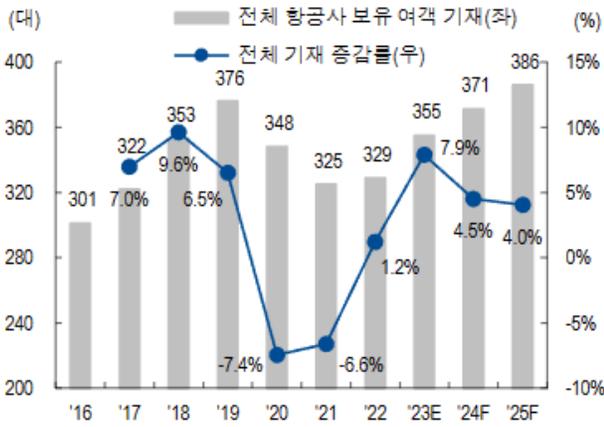
3Q23: 영업이익 500억원 예상, 단기 실적보다는 통합 여부가 중요

3분기 매출액 3,413억원(+95.6% y-y), 영업이익 500억원(흑전 y-y, 영업이익률 14.7%) 전망. 국제선 ASK(공급), RPK(수요) 각각 31.8억km·명(+209% y-y), 28.2억km·명(+256% y-y)로 전망하며, 국제선 운임은 87.1원(+13.8% y-y, +7.3% q-q)예상.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통합 LCC 출범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판단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593.4	1,273.1	1,265.9	1,252.3
증감률	140.1	114.5	-0.6	-1.1
영업이익	-67.3	177.7	68.3	66.0
증감률	적지	흑전	-61.6	-3.3
영업이익률	-11.3	14.0	5.4	5.3
(지배지분)순이익	-49.4	137.1	59.6	59.8
EPS	-947	2,627	1,141	1,146
증감률	적지	흑전	-56.6	0.5
PER	N/A	4.7	10.8	10.8
PBR	7.9	3.4	2.6	2.1
EV/EBITDA	22.6	1.6	3.0	2.6
ROE	-35.1	91.6	27.0	21.4
부채비율	607.9	290.5	171.3	113.8
순차입금	-174.0	-193.3	-169.1	-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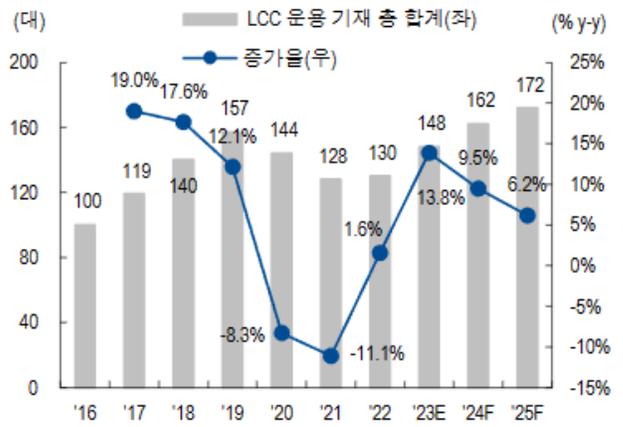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국내 항공사 운용 기재(여객) 추이 및 전망



자료: AT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2. 국내 저비용항공사 운용 기재(여객) 추이 및 전망



자료: AT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씨에스베어링
 2024년은 실적 성장의 해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주영 애널리스트](#)

공급부족과 고금리: 가격 협상력 우위 가능성

GWEC와 Wood Mackenzie는 2026년부터 풍력 부품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한다. Vattenfall과 Orsted 등 최근 이어진 풍력발전 공급망 이슈에서 엿볼 수 있듯이 향후 부품 공급망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풍력 터빈사들은 원가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씨에스베어링의 생산설비는 전량 베트남에 위치해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국내외 경쟁사 중 현재로서는 씨에스베어링 대비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은 없다. 납기와 품질 걱정 없고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씨에스베어링을 향한 고객사들의 러브콜은 지속될 것이며, 동사의 가격 협상력 역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고객사 다변화로 실적 성장 본격화

GE 증설과 신규 고객사 유치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1)GE 증설에 따른 신규수주 기대: 씨에스베어링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GE는 기보유 공장 증설 및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CAPA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신규 발주가 예상

되는데 동사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2024년부터 GE의 주력 제품이 기존 2MW에서 3MW로 변경됨에 따른 ASP 상승 역시 씨에스베어링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

2)신규 고객사 유치: Vestas와 Enercon향 매출이 각각 2024년, 2025년부터 새로 인식될 전망이다. SGRE의 경우 지난 6월 발생한 대규모 품질 이슈로 씨에스베어링의 신규 수주가 기대되며, 교체 수요 확보는 SGRE 내 비중 확대 발판이 될 것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씨에스베어링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4년 예상 EPS에 target multiple(27.2x)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3Q23 실적은 매출액 276억원(-2% QoQ), 영업이익 19억원(-14% QoQ, OPM 7%)을 예상한다.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판매량 감소 영향이기에 4Q23 반등이 기대된다.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155억원(+135% YoY), 영업이익 76억원(흑전 YoY, OPM 7%)을 전망하며, 현 주가는 12M Fwd P/E 22.0x, P/B 2.8x 수준이다. 고객사 확대(Q1) 및 가격 협상력 강화(P1)로 2024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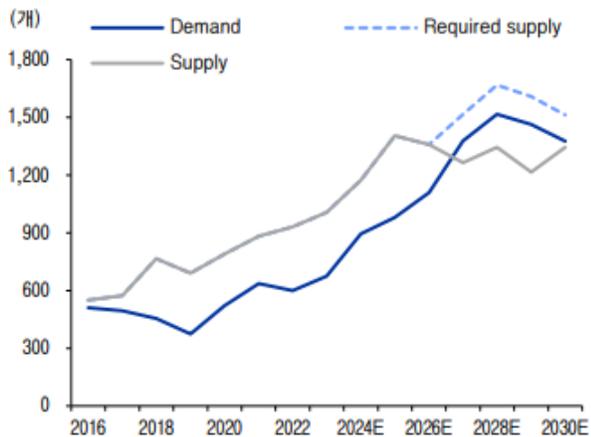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E	2024E	2025E
매출액	96	49	115	198	286
영업이익	0	-9	8	22	35
순이익	-1	-17	6	16	28
EPS (원)	-55	-644	237	595	1,034
증감률 (%)	적전	적지	흑전	150.9	74.0
PER (x)	-154.3	-12.6	45.7	18.2	10.5
PBR (x)	1.5	2.5	3.1	2.7	2.1
영업이익률 (%)	0.5	-18.0	6.6	11.1	12.1
EBITDA 마진 (%)	4.8	-9.1	9.8	13.4	13.7
ROE (%)	-2.1	-24.3	7.1	15.8	22.6

주: 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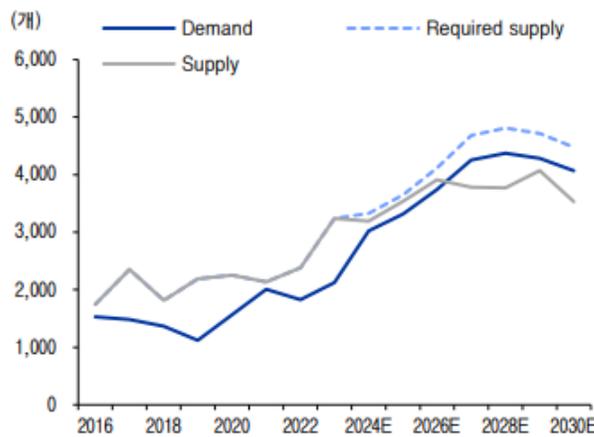
자료: 씨에스베어링,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해상풍력 나셀 공급부족 예상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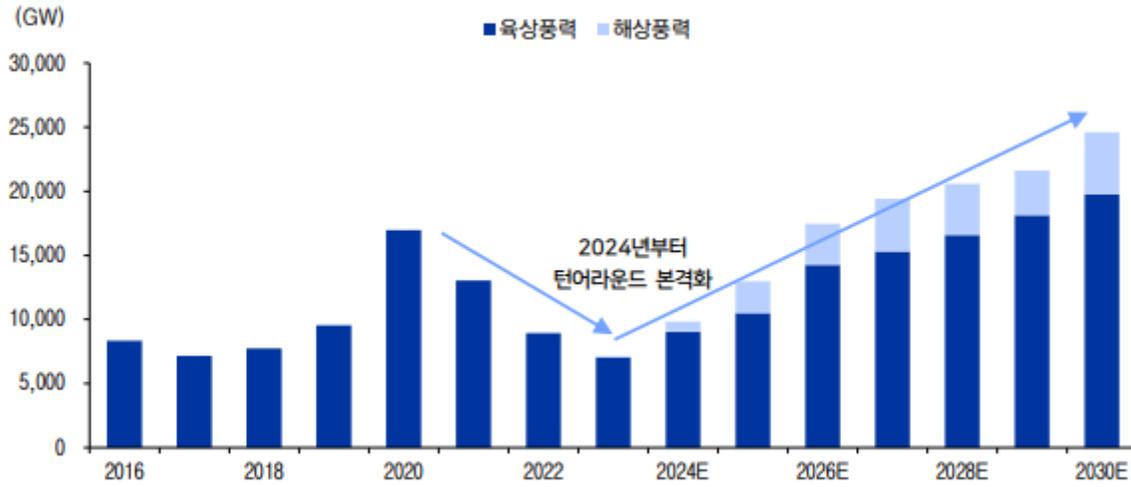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해상풍력 블레이드 공급부족 예상 시나리오



자료: 산업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미국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BNEF,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오비고

자동차 SDV 구현의 든든한 파트너

[\[출처\] NH투자증권 강경근 애널리스트](#)

자동차 SDV 구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 담당

SDV(Software Defined Vehicle)는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SDV 전환으로 무선 업데이트, 운전보조,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 구현 가능. SDV는 완성차 업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가능케 하고 운전자에게 개선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SDV 전환 가속화 중

오비고는 차량용 미드웨어 S/W기업. AGB 브라우저, 앱 프레임워크, 개발 툴킷, 앱 스토어 등과 관련된 주요 솔루션 제공해 SDV 구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담당. 주요 고객사로 닛산, 르노 등 완성차 업체와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Tier1 자동차 부품사 확보. 작년 9월 LG유플러스로부터의 지분투자(지분율 4.95%)유치 이후 강화된 사업 파트너십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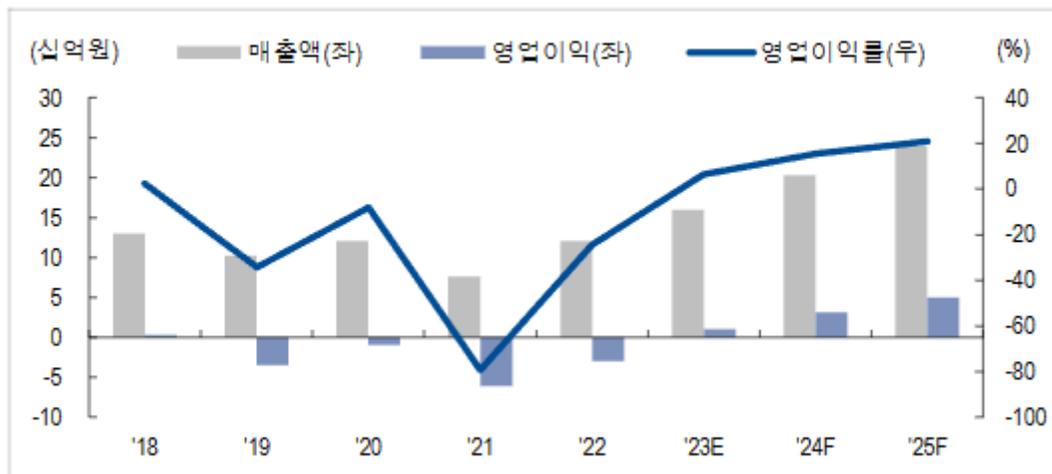
고객사 및 적용 차종 확대로 로열티 매출 증가

올해 2분기부터는 현대차그룹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IV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솔루션 공급 개시. 향후 동사의 웹 솔루션 적용 차종 확대 예상. 이에, 동사의 핵심 매출인 로열티 매출 올해 72억원(+137% y-y)으로 확대 전망. 로열티 매출은 별도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아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창출 가능. 로열티 매출 확대로 올해 흑자전환 기대. SDV 구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접근 유효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2.1	16.0	20.3	23.9
증감률	57.8	32.4	26.9	17.7
영업이익	-3.0	1.0	3.2	5.0
증감률	적지	흑전	205.5	58.0
영업이익률	-24.5	6.5	15.6	20.9
(지배지분)순이익	-2.5	1.5	3.2	4.7
EPS	-218.6	120.5	264.3	385.8
증감률	적지	흑전	119.3	46.0
PER	N/A	79.5	36.2	24.8
PBR	3.3	2.7	2.5	2.3
EV/EBITDA	N/A	32.2	16.0	10.5
ROE	-8.1	3.7	7.1	9.5
부채비율	11.9	11.7	11.4	10.8
순차입금	-30.5	-39.4	-42.0	-46.2

단위: 십억원, %, 원, 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오비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